

악수하고, 의지 다지고... 野與, 심판·인물론 앞세워 '승부수'

충선 유세현장 가보니

서울 마포·용산·성동구

野 강태웅·與 권영세 '리턴매치' 김부겸 위원장 강 후보 지원 유세 권 후보, 성당·교회서 일정 소화 尹대통령 국힘 입당 때 가교 역할

“백중세다.”

제22대 총선에서 서울 용산에 출마한 강태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3월31일 권영세 국민의힘 후보와 4년만의 리턴매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강 후보는 4년 전 권 후보에게 약 800표 차이로 낙선의 고배를 마신 적이 있다. 강 후보는 일요일 주말 한적한 용문시장 골목을 다니며 상인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강 후보의 옆에는 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있었다. 김 위원장은 유세차에 올라 지원 유세를 마친 후 강 후보와 빠른 걸음으로 걸으며 시민들과 악수했다. 대형선거를 10번 이상 뛰었을 정도로 선거에 능숙한 김 위원장이 상인들에게 악수를 청하면, 강 후보가 뒤이어 악수했다.

김부겸 위원장은 한 마트 앞에서 정부 지원금을 받아 대폭 할인된 사과 상자 앞에 섰다. 그는 할인된 사과를 보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과 875원' 발언을 연관지으며 높은 먹거리 물가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다음 행선지인 서울 강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지난 3월31일 서울 용산구 용문시장에서 강태웅 민주당 후보의 유세차에 올라 지원 연설을 하고 있다. /박태홍 기자



제22대 총선에 서울 용산에 출마한 권영세 국민의힘 후보가 지역 소재 배드민턴장에서 지지자와 포옹하고 있다. /권영세 후보 측

동구로 떠나기 전 강태웅 후보에 대해 “까다롭지만 한 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께서 강 후보에 대해 ‘내가 발탁한 사람’이라고 하셨다”고 치켜세웠다. 김 위원장은 유세차를 통해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라고 조언하며 떠났다.

국민의힘 권영세 후보는 부활절을 맞아 지역 내 성당에서 미사, 교회예선 예배를 드리며 일정을 소화했다. 권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2년 선

배로, 윤 대통령이 20대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 입당을 고민할 때 가교를 놓았던 여당의 중진이다. 정권이 바뀌며 대통령실도 옮겨온 용산구에서 권 후보도 “남은 선거기간 동안도 2배로 뛰겠다”며 필승 의지를 다졌다.

이번 총선에서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은 원래 부동산 현안을 거론할 때 자주 등장했던 지역이다. 마용성은 강남·여의도·광화문 등으로의 진출이 좋고 재개발로

신축 아파트 단지가 들어와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한 곳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고소득자와 중산층이 많이 유입된 마용성의 정치 구도 변화를 기대하고,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보수세가 강한 용산 선거구를 제외하고 승리했기 때문에 정권심판론과 인물론을 앞세워 마용성 석권을 노린다.

마용성에 걸려있는 선거구는 총 다섯 곳이다. 먼저 현역 노용래 민주당 의원

이 빠진 마포갑엔 조정훈 국민의힘 후보와 영입인재인 이지은 민주당 후보의 양자 구도가 치러진다.

마포구에서 자녀를 다 키웠다는 시민 김모씨는 “노 의원이 워낙 오래했기 때문에 이제 바뀔 때가 된 것 같다”며 새로운 정치인의 등장을 기대하는 눈치였다.

마포읍은 운동권 심판론을 내세운 함운경 국민의힘 후보, 수석최고위원인 정청래 민주당 후보, 비례대표 의원에서 지역구 후보로 재선을 노리는 장혜영 녹색정의당 후보가 출마했다.

중·성동구갑은 여야의 이름값 있는 여성 정치인끼리 맞붙는다. 한국개발연구원 출신 '경제전문가' 윤희숙 국민의힘 후보와 국민의힘위원장을 역임하며 윤석열 정부와 대립한 전현희 민주당 후보가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다.

중·성동구을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경선에서 이기고 4선을 노리는 이해훈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대변인을 맡아온 박성준 민주당 후보가 맞붙는다.

한편, 마포구에서 동쪽, 성동구에서 서쪽에 있는 종로구도 치열하다. 정치1번지라고 불리는 종로는 동별보수세와 진보세가 뚜렷하게 구분된 곳으로, 현역 지역구 의원인 최재형 국민의힘 후보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광상인 민주당 후보가 출마했다. 또한, 금대성 개혁신당 후보도 출마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관심을 모은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조국 “민주가 바로돼야 민생이 바로 잡힌다”

(조국혁신당 대표)

“윤정권 바뀌야 민생이 바뀐다 민주당 비례정당과 합당 없다” 대권 질문에 “자질 없다” 선그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일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한 민주주의가 회복돼야 민생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정치권력’의 교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인터넷기자단 공동인터뷰에서 당의 민생 위기 해결 방안이 취약하다는 지적에 “윤석열 정권을 바꿔야 민생이 바뀐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정 운영 책임은尹 정권에”

그는 “민생과 민주주의를 적대적으로 또는 대립되거나 모순적으로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 “민주가 바로돼야 민생이 바로 잡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독재 정권이 권력을 쥐고 있고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 정책 결정권이 (윤석열 정부에) 있고 예산 결정권이 다 있는데, 거기가 바뀌어야 민생이 바뀌는 것”이라며 “조국혁신당이 집권당이 아니다. 제가 대통령도 아니고 민주당도 집권당도 아니다.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권한과 책임은 윤석열 정권에 있다”고 부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인터넷기자단 공동인터뷰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인터넷매체 공동취재단

조 대표는 민주당에서 조국혁신당의 비례 돌풍을 의식해 ‘물뺀론(지역구 투표에서도 민주당 후보, 비례대표 투표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연합 선택)’을 펼치는 것에 대해 “일정한 긴장과 경쟁을 가지고 자기 쪽으로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정치행위라서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고 개의치 않아 했다.

◆총선 이후 합당 가능성에 선 그어

조 대표는 총선 이후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연합의 합당 가능성을 묻

는 질문에 “그럴 일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강령은 큰 차이가 없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강령의 차이는 일정하게 있다”며 “예를 들어, 검찰개혁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기소 배심제와 검사장 직선제를 조국혁신당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처럼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처를 분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민주당에서는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목표하는 바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에 공통의 과제가 매우 많다. 이 같은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며 “현행 국회법상 상임위원회별로 안전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쟁점법안 통과를 위해) 안조위가 만들어질 것이고, 민주당과 협력할 수 있는 정치 세력 정당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의 설명은, 상임위원회에서 쟁점법안 처리가 교착상태에 빠질 경우, 국회 다수당에 속하지 않고 민주당과 거리가 가까운 조국혁신당이 안조위에 참여해 법안의 상임위 통과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두당이 합당을 하지 않아야 안조위에서 법안 처리 지원을 막을 수도 있다고 했다.

◆“대법원 판결 준수할 것”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2심 실형 판결을 받고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조 대표는 “결과가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골방에 웅크리고 있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제가 광야로 나온 것 아닌가”라며 “그것을 신경 쓰고 염두에 두면서 정치하지 않으려고 한다. 최종판결에 제가 동의하던 동의하지 않던 간에 대법원 판결을 당연히 준수하고 감수할 것이고 최악의 결과도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대권 도전에 관련한 질문에 대해선 “생각할 겨를도 없고 자질도 없고 경험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인 후보인 박은정 전 검사 배우자의 전관예우·재산증식 논란에 대해선 “그 자체만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적절한 방식으로 해명하고 의혹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역으로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다. 박 후보가 문제 있다는 보도를 제가 들은 적이 없다. 인요환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이 ‘가족을 치고 아이를 치는 것은 마피야보다 못한 짓이다’라고 말했다. 공격을 하려면 박 후보를 공격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국민생명걸린 문제 의사 현장복귀 촉구”

>> 1면 ‘집단행동 타협 안해’서 계속

이어 “제가 정치적 득실을 따질 줄 몰라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고통에 신음하는 모습을 오랫동안 보았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문제를 어떻게 대통령이 유불리를 따지고 외면할 수 있겠냐”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면서도 현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고 있는데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내팽개친 채,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그 누구도 특권을 갖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고 복귀를 요청했다. /박태홍 기자